

지역 소식통

부안군, 동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개소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는 관내 동부권 농업인들의 편의향상 등을 위해 각종 농기계를 갖춘 동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부안군 동진면 신광로 20)를 개소했다.

동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높여 농번기 농촌 일손부족 해소와 적기영농 추진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개소식이 예정돼 있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개소식은 잠정 연기하고 2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

동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부안읍과 주산면, 백산면, 동진면 등 동부권 농업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위치로 총 19억 7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연면적 462㎡ 규모로 건립했으며 75종 176대의 임대농기계를 갖추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5개 면지역

비지정 지식묘 정비사업 진행

고창군이 그간 풀속에 가려져 관심 밖에 있던 '비지정 지식묘'의 보존관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고창군에 따르면 그간 관리와 보호에 취약했던 비지정 지식묘에 대해 일련번호가 부여된 표지판을 설치하고 주변 정리를 하는 등 적극적인 보존관리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성수면, 대신면에 이어 올해는 5개면(삼원면, 상하면, 해리면, 무장면, 흥덕면)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달부터 비지정 지식묘에 대한 현황조사가 진행중이며 5월부터는 표지판을 설치하며 주변을 정비한다.

고창군은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고창군 전역의 비지정 지식묘에 대한 보존과 관리를 위한 표지판 설치작업을 완료한다.

고창군의 적극적인 지식묘 관리대책은 세계 제일의 거석문화유산을 보유한 고인돌 왕국 고창이 한반도 첫 수도로서의 가치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셈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코로나 19 여파 지역 상권 보호

유진섭 정읍시장 정읍사랑 상품권 사용 지역경제 활성화 나서



유진섭 정읍시장과 공무원들은 2일 연지사장에서 '정읍사랑 상품권 사용 행사'를 가졌다.

유진섭 시장을 비롯한 정읍시 공무원들이 '정읍사랑 상품권 사용 행사'를 가지며 전통시장 살리기에 나섰다. 유 시장과 공무원들은 2일 연지사장에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읍사랑 상품권 사용 행사'를 가져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 19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장 상인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유 시장과 공무원들은 연지사장 내 식당에서 점식식사를 한 후 복지포인트로 구매한 정읍사랑 상품권을 사용해 식사 비용을 계산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전통시장과 상점 등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상인들을 위로했다.

유진섭 시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읍시 공직자들이

이 정읍사랑 상품권 사용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며 "상인들께서 힘든 시기를 뜻깊이 이겨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시기인 만큼 시민들도 정읍사랑 상품권 구매에 적극 동참해 지역경제 회복에 함께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 지역 자원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정읍사랑 상품권을 발행했다.

정읍시 공무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슬션수범하여 2억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정읍사랑 상품권 구매에 사용했다.

아울러 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읍사랑 상품권을 8% 특별할인해 판매하고 있다.

지역 농·축협과 전북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 등에서 1인당 월 7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국가예산 확보로 미래성장 동력 확보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개최

민선 7기 유기상호가 한발 앞선 국가예산 대응으로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나선다.

고창군은 지난달 28일 종합상황실에서 유기상 군수 주재로 '2021년~2022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최근 '코로나19' 발생과 글로벌 경기 위축 등 대내외 리스크로 본격적인 경기 회복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고창의 재도약을 위해 새로운

국비사업 발굴과 예산 확보에 군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3차례에 걸친 보고회를 거쳐 매년 국가예산 확보사업을 91건, 8236억원(총사업비)으로 확정했다.

또 선제적 대비 차원의 2022년 확보사업으로 38건, 1조2181억원(총사업비)을 찾아냈다.

관련 사업 중에는 고창군 핵심시책인 농생명식품산업과 역사문화관광수도 전략 사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에 더해 오는 7월 예정된 고창개발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성공 이후

'대한민국 유일 세계문화유산 3관왕 도시'의 위상을 높일 국가사업 등이 제안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이날 유기상 군수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피해상황 등을 꼼꼼히 챙기며 "정부, 전북도 추경 등에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진정국면에 접어들 때까지 관련 부처와의 연결고리 유지하고, 부서별로 목표하고 있는 중점사업들이 정부계획과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46개 사업 1365억원 확정

정읍시가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으로 46개 사업 1365억원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경종 분야 14개 사업 457억, 축산분야 4개 사업 354억, 임업유통 분야 16개 사업 108억, 정책 분야 13개 사업 446억원이다.

시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해 농업분야 기관단체장과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 30명을 대상으로 '정읍시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서면으로 진행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시는 이날 의결된 사업을 전북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시는 이들 사업 전체가 확정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협조 체계를 구축,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입주 2일부터 시작된다.

부안봉덕 공공실버주택 입주 시작

총 80세대 영구임대주택, 저소득 고령층 주거복지 향상 기대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입주가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군은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141억여원을 투입해 공공실버주택 건립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12월 전북도 최초로 공공실버주택을 완공했다.

공공실버주택은 관내 만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층의 주거복지 향상 등을 위해 건립된 총 80세대(26㎡) 규모의 영구임대주택이며 1층에는 식당, 건강관리실, 복지관 등이 갖춰져 있고 2층부터 10층까지는 주택 등으로 구성돼 맞춤형 노인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고령층이라는 입주자들의 특징을 고려해 설계된 공공실버주택은 건물 전체에 문턱이 없으며 각 세대 화장실에는 높이조절이 가능한 세면대와 응급비상벨 등이 갖춰져 있다. 입주는 오는 4월 1일까지 각 세대마다 지정한 날짜에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모든 방문자는 손소독과 함께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 건물 전체에는 철저한 방역과 소독을 수시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입주를 축하하기 위해 방문한 권익현 부안군수는 "어려운 시기에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이 위축돼 있을 텐데 새로운 주거지를 통해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복합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화훼농가 어려움 해소 위해 밭 밷고 나서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코로나 19 감염 사태로 꽃 재배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 달 28일 '꽃 사주기 행사'를 갖고 화훼농가 살리기에 나섰다.

이번 '꽃 사주기 행사'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성수기를 맞은 화훼시장이 크게 위축된 데 따라 지역 화훼농가의 시름을 달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읍 지역 한 농가는 작년에 프리지아 전용 양액재배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해 전년 대비 30% 이상 생산으로 예년에 비해 수익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꽃 소비가 줄고 가격이 하락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풀잎식·입화식 등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어려움에 직면한 화훼농가를 위해 프리지아 300송을 구매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프리지아 꽃다발을 구입해 지인에게 선물하거나, 향기 나는 사무실로 근무환경을 개선했다. 또, 꽃 소비 촉진을 적극 홍보해 주민들이 꽃 사주기 행사에 참여하고 실질적인 꽃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알릴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역 화훼농가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지속적인 꽃 소비 활성화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편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세 | 750ml 1ea/12%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세 | 375ml 5ea/13%

GIFT SET 6세 | 500ml 장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hdi Wine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